

진짜배기를 만날 수 있는 곳
다이토구

에도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야나카(곡중)라는 지명은 우에노다이와 혼고다이 사이의 골짜기 지역을 시타야(하곡)에 대비시켜 이름 붙인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야나카는 에도시대의 도시 계획으로 많은 사원과 신사가 모여들면서 시가지 몬젠마치로 발전했으며, 이후 ‘절과 언덕의 거리’로 유명해졌습니다. 2007년에는 ‘아름다운 일본의 역사적 풍토 100 선’에도 선정되었습니다.



